

신종 감염병 관리는 기본적 틀을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윤태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인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H1N1 Pandemic), 중
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감염병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이슈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번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를 통해서 감
염병 대응시스템에 따라 보건 의료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난을 가져왔다. 인류의 역사는
원래 재난과 학습의 연속이라고 혹자는 말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뼈아
픈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진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MERS로 우
리 사회가 홍역을 한바탕 치르면서 우리보건의료체계의 빠른 성장에 따른 감추어진 허점이 적
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발생 감염병은 상당수 퇴치되거나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속한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 실제 모든 감염병은 여행객이나 화물
을 통해서 기후 등 적합한 생태, 환경 조건에서 타 지역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계
가 일일생활권으로 거의 하루면 지구반대편에서 유행하는 질환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감염병의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감염

병과 함께 다문화인의 증가와 같은 미래 인구 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내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감염병 관리의 기본적인 틀은 1) 지속적인 감시체계 가동, 2) 검역 활동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 3) 실제 사례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4)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5) 환자관리 및 교육·홍보, 6) 개인위생부터 백신접종에 이르는 예방활동, 7) 국제협력, 8)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성된다.

감염병 예방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감염병 관리의 기본적 틀이 체계적·시스템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이 제일이다. 국내에 있지 않은 바이러스 질환의 대비를 위하여 밀려오는 해외유입 감염병의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대응 지침을 개발하여 교육과 실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감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손씻기나 기침예절 준수 같은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들을 체계적 관점 및 시스템적 관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종 감염병으로 또 다시 허를 찔리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번호에서는 ‘신종 감염병 관리방안’을 정책 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신종 감염병 감염관리 현황과 대처방안’을 다루었고,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는 국내에서 경험했던 신종 감염병 또는 국내에서 유행 가능한 ‘신종 감염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는 이번 메르스의 유행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신종 감염병의 이해와 대비·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염호기 교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근본원인과 체계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